

# 무조건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가세요

## 29면에서 계속

는 길과 오는 길, 양면이 다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것도 생각 없고, 가서 죽는 것도 생각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가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서 오는 것도 생각해야 이것이 핀트가 맞는지요. 그래서 '시발점과 종점이 돌아야 한다. 정신계와 육신이 돌아야 한다. 동쪽과 서쪽이 돌아야 한다. 넓게 본다면 여자와 남자가 돌아야 한다. 모습은 다름이지만 어찌 마음이야 돌아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 아닌 나'와 지금 '현상의 나'가 바로 같이 작용을 할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법을 굴릴 수 있고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되고 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 못한다면... 그래서 '나 아닌 나'는 부(父)라고 하고 지금 '현상의 나'는 자(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 작용을 하고 이따가 간다 이겁니다.

몇 달 됐지만은 L.A.에 갔을 때, 하버드 대학에 있는 박사나 그 외에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 받으려고 논문을 쓰고 있는 생물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뭐,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해 주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까 아주 아재 위가 딱 맞게, 그냥 그 논문이 잘 써지더라는 거죠.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녁이 아침이고 아침이 저녁이다, 저녁과 아침이, 24시간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일 아침에 생각이 났다, 이러더라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맞붙어 버린 겁니다. 삼천 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삼천 년 후도 오늘이요, 삼천 년 전도 오늘입니다. 오늘도 화(化)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찰나찰나 나오는 대로 작용을 일으키고 나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탁발을 하러 나왔습니다. 탁발을 하면서 성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가 생전 그러지 않더니 아주 슬픈 내색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프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여직껏 은사님을 모셔왔어도 우시는 일이 없고 슬퍼하시는 일이 없었는데 저게 무슨 일인가?' 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이따가 얘기하마.' 그리고 가시거든요. 얼마쯤 가다가 보니까 나무에서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소릴 듣고선 아니, 화창하게 웃으시더라 이겁니다. 아주 화창하게 웃으시니까 '아니, 또 웃으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생전 울고 웃는 것을 못 봤는데 아니, 그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래, 가서 얘기하마.' 그러면서 처소로 돌아

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녁 공양을 하고 나서 아까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서 여쭙 봤습니다. 여쭙 보니까 글썽, 성문 바깥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그냥 말라 빠들어진 귀신이, 즉 말하자면 아귀가 앉아서 있다가 그 스님을 보더니 달려들어선 때 달려들 살려 달라고 그냥 애원을 하거든요. 애원을 하길래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야, 성안으로 밥 얻으러 간 어머니가 오백 년이 되도록 안 나온다는 겁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내 어떤 땀 옷을 이나옵니다. "스님께선 꼭 그려야 할 수 있으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시 걸랑은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아들이 성 바깥에서 이렇게 빼들어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으니 그렇게 일러 달라." 고 하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모두가 비유해서 말해 놓은 것이지만,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반을 못 보니까, 못 보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반 얘기만 한 거죠. 그대 몸은 성 밖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했더니 말입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하고 웃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신다면 마음으로 빛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서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들을 수 있고, 또는 시시각각으로 회해서 나뉘기도 할 수 있고, 진드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내가 될 수 있

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땀을 하나 돌리려고 해도 심봉을 쫓아야 땀들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땀으로 넣고 가는 것도 심봉을 쫓아야만 갑니다. 그런데 심봉도 안 쫓고선 "갈려 나와라, 갈려 나와라." 하고 바깥으로 쳐들고 밀고 온통 야단들을 하니 그게 어떻게 공덕이 돼서 갈려 나오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뿐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모두가 실상의 그 실천을 그대로 평등공법(平等空法)으로 하시길 바라면서, 또 팔수공법으로... 허허허... 모두가 이렇게 잘해 나가시길 바라죠. 그러면 다 살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죽는 게 있어야 살아나오는 게 있고, 또 죽는 게 있으면 살아 나오는 게 있고, 이게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요, 이 상대성 원리의 인연의 끈이 달려 가지고 온통 그 끈을 왜 벗어나지 못하는

가지가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비유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저 남의 거친 것만 보지 마세요. 내 가기도 지금 바쁘니까. 그러니까 거친 걸 보면 거친 대로 거기가 달려 놓고 보는 게 없이 보시도록 하십시오. 듣는 게 없이 들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까 내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내가 있으니 까 내가 보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듣는 거지. 잘못된 것도 내가 있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시라 이겁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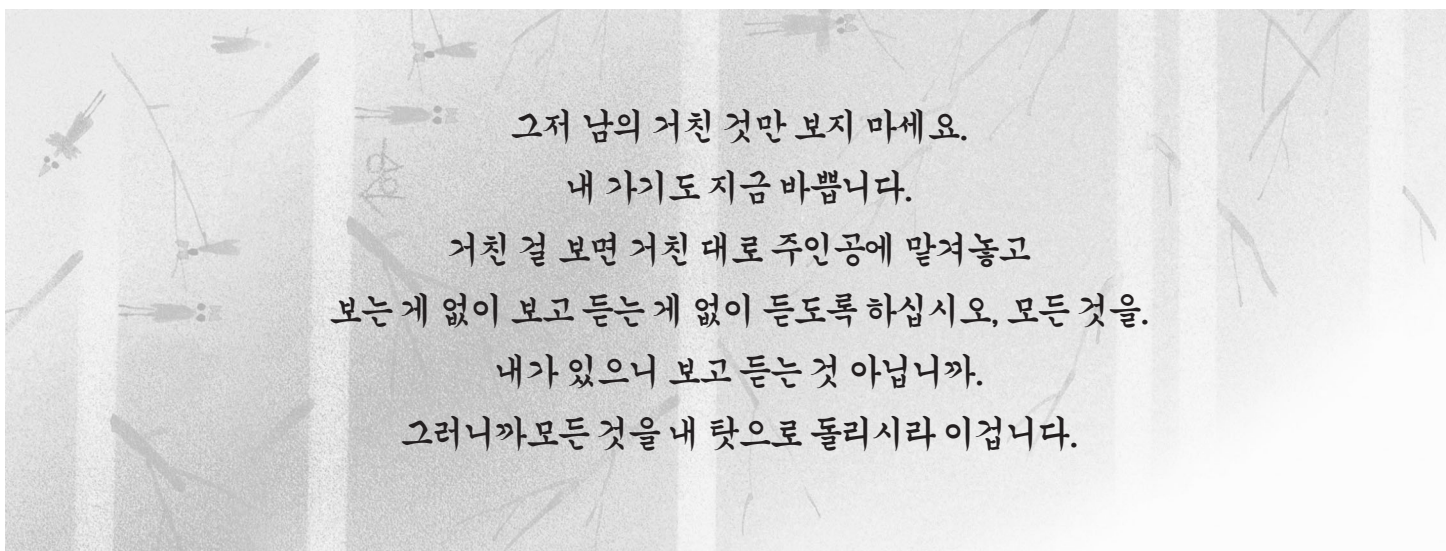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로 통쳐야 우리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가는 데 앞장서죠. 모두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우리가 지금 속은 비고 결만 딱 차 가지고, 지금 정치도 모두가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거기 있고, 속이 텅 빈 나라가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가지만은 칭찬할 만합니다. 본받을 만하고요, 남의 거 거저 먹지 않겠다는 사상 말입니다. 그전에 어려서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물건을 접시에 담아 가면, 그 접시를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또는 밥을 먹어도, 물론 불교의 발우 공양에서 배워 간 공깃밥이기는 그거를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이 적고요, 악랄하게 했다 할지라도 악랄하게 하면 했지 탓은 안 한다 이겁니다. 허허허...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수박을 놓고 "이게 뭐고?" 하고 돌아가지 말고 같이 있으면 칼로 탁 잘라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세에 그 수박씨가 다시 나와도, 수박으로 다시 나와도 여전히 그 맛은 알 겁니다. 지금 한 생애 알아 놓으면 세세생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 놓아야 다음 생애에서도 또 푸경만 열면 그냥 모두 술술 나오죠. 그래서 세계가 평등해지고 모두 꽃이 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모두 공부들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평등해지려고 합니다. 허허허...

사회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스님: 예, 하여튼 여러분 정신을 남한테 뺏기지 않도록 하시고 열심히 공부들 하시길 바랍니다.

※ 위 문본은 1991년 11월 3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니까,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오백 년이 되도록 밥 한 술 안질 못해서 빼들어서 말라 죽기 직전에 있어 나가지 못했노라고 일러 달라." 고 하더라고요. 허허허. 그래서 그 스님께 서탁발한 밥을 좀 나눠 줘서 먹이고 나니까야, 싱싱해져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그만 상봉을 했죠. "아들과 어머니가 천지가 상봉을 하듯이 상봉을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단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아가 왜 웃으셨습니까?" 하니까 "하도 애원을 하는데 불쌍해서 그랬느니라." 이라고, "웃음은 왜 웃으셨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글썽' 이것 좀 들어 보라. 내가 전자에 입산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야, 내 자식놈이 발목을 쥐고선 그냥 못 가게 해 가지고, 나 죽이고 떠나라고 하도 그러 길래 그냥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서 사대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입산을 했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는데야, 가다 보니까 그 참새가 바로 과거의 내 아들 녀석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웃었느니라."

고, 무엇이든 원하면 한마음이 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평발이다! 지렁이가 발이 없지만 지렁이 발 하나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민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서 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알았다 한다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만 올랐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귀신이 됩니다. 허허허... 그리고 또 모자라는 사람으로 아주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 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함이 없이 여러분의 그 괴로움을 덜어 주고 같이 해 주고, 아픔도 내 아픔과 같이 해 주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이 공부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학술적으로나 또는 지식적으로나, 또는 과학적으로 해 봐도 공덕이 안 됩니다. 과학도 지금 물질과학으로 이렇게 한다면 아니 되고 정신의학이 돼야 하고, 정신과학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정신이 빠지면 안 되

냐? 옛것저것도 내가 그랬지만 거미줄에 얽힌 발목을 빼지 못해서 애쓰고들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거미줄이 뭘니까? 그것도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꿈을 꾸고도 그것이 석연치 않아서 온통 야단들을 하거든요.

이사를 가도 이사 잘못 가면 뭐가 잘못된다 고 해서 낱말을 생각을 안 하나. 아니, 혼인을 해도 그렇질 않은가.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 뭐 궁합이 따로 있습니까? 만날 그렇게 요만한 거 하나서부터 큰 거까지 걱정하는 걸로 그냥 인생이 끝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걱정들을 마시고 좀 활달하고 자유스러운 꼴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내 끝난 데 없이 이 진리는 그렇게 지금, 과거나 미래나 현실로 돌아가면서도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모두 어디 고정된 게 하나도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타파하고 물리가 탁 터지면, 하나가 터지면 백 가지, 천 가지, 만

현대불교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직지直指’는 깨달음에 대한 선禪의 교과서 덕산스님의 안목으로 푼 선문답의 세계  
**돈오의 길 직지심경 (전 3권)**

덕산 역해 | 신국판 | 흑백 | 전3권 42,000원  
상권(216쪽 | 12,000원) 중권(344쪽 | 14,000원) 하권(540쪽 | 16,000원)

선(禪)수행의 지침서인 《직지심경》은 사람의 본래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佛心)임을 깨달아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실현하며 살라는 가르침이다. 덕산스님이 염불선(念佛禪)의 깨달음 체험을 바탕으로 선문답과 계승 등을 쉽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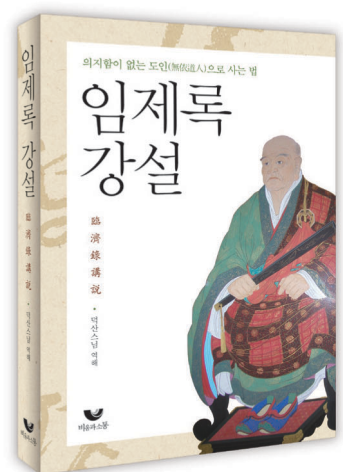
수취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기풍(기호한 지르는 할 · 뵈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움과스토 02-2632-8739, buddhapi5@daum.net



## 孝 불경 라디오 成佛

www.hyunbulshop.com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6만원 (배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 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현대불교헌불상 (02)2004-8214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 1. 불자의 기도
- 2. 아침의 기도
-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 5. 명상음악
- 6. 행복만 가정을 위한 기도
-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 8. 생일의 기도
- 9. 장영 명불
- 10. 저녁의 기도
- 11. 마음의 머무는 곳에
- 12. 반송으로 왔다가
- 13. 사랑을 읊 때는
- 14. 여름 별래는 겨울이 있음
-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 18. 향수를 바르면
-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 20. 일시에 눈을 잠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 21. 광명전인 1
- 22. 광명전인 2
- 23. 개경계
- 24. 지경공덕분
- 25. 예불문
-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 27. 천수경
- 28. 반야심경
- 29. 화엄경 약한계
- 30. 법상계
- 31. 참선곡
- 32. 우리말 반야심경
- 33. 관음경전
- 찬불가
- 34. 삼귀의
- 35. 찬양합창
- 36. 예불가
- 37. 청불가
- 38. 불교의 노래
- 39. 새 법우 원경가
-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 42. 사찰시원
- 43. 산회가
- 44. 관세음의 노래
- 45. 보현명원
- 46. 김로법을 전하자
- 47. 초파일의 노래
- 48. 마하반야의 노래
- 49. 성도제의 노래
-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 51. 흥분 떠난 연꽃
- 52. 관세음보살 1악장
- 53. 관세음보살 2악장
- 54. 개경계
- 55. 이상명불